



멕시코, 내년 최저임금 \$278.80페소로 12% 인상

멕시코 정부가 내년(2025) 최저 임금을 올해 \$248.93에서 12% 인상된 \$278.80페소로 결정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Claudia Sheinbaum Pardo) 대통령이 이끄는 연방정부는 일반 최저임금을 12% 인상하기로 기업 및 노동계와 합의했으며,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인상은 근로자, 고용주, 정부 간의 삼자 합의의 결과로 일반 최저 임금은 하루 248.93페소에서 278.80페소로, 월 약 8,364페소로 인상된다. (북부 국경 자유지대에서는 하루 374.89페소에서 419.87페소로 인상)

멕시코 고용주 연맹(Coparmex)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독립 회수 금액(MIR) 12.85페소와 인플레이션 요소 6.5%를 적용한 액수로



알려졌다. 근로자가 근무일 동안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받아야 하는 최소 금액인 최저 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가족들의 삶이 개선 될 것으로 정치권은 기대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인상 범위에 대한 결정이 경제의 중추로 간주되는 영세 중소기업(SME)의 급여 인상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우선시해야 한다면서 조심스

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전문직에도 적용이 되는데 최소 전문 급여, 즉 전문 기술자가 업무 수행을 위한 출발점으로 받아야 하는 보수에도 해당이 된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연방 노동법 제93조에 규정된 전문 최저 임금은 하나 또는 여러 지리적 적용 영역 내에서 결정된 경제 활동, 전문직, 무역 또는 특수 업무 분야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 임금이다. 한편, 멕시코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면서 매년 최저임금 인상을 직전 년도의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은 수치로 올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2024년 11월 인플레이션은 4.45%로 연간 전체 평균도 이 수준과 엇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체는 거의 3배에 가까운 12%의 임금 인상을 하면서 기업체들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민들이 채용하는 주요 직종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은 다음과 같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8시간, 1일 8시간 근로 기준)

- 가정부 \$303.07
- 운전기사 \$328.23
- 요리사 \$325.71
- 카운터직원 \$289.24
- 웨이터 \$278.80

신공항(AIFA)-Pachuca간 열차 노선 건설예정

셰인바움 대통령이 "멕시코 주에 위치한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AIFA)과 이달고(Hidalgo) 주의 주도인 파추카(Pachuca) 사이의 여객 열차 노선 건설이 4월에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2026년 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는 군이 맡게 되는데 현재 타당성 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새 철도가 완공되면 멕시코시티의 부에나비스타(Buenavista)역과 AIFA를 경유해 파추카 사이의 철도 노선이 생기게 된다.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Felipe Angeles International Airport)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전 대통령이 페냐 니에토(Pena Nieto) 행정부의 부분적

으로 완료된 새로운 멕시코시티 공항 텍스코코(Texcoco) 신공항 프로젝트를 취소한 후 2022년 3월 개장한 신공항이다.

개장 후 생각보다 지리적으로 멀다는 점과 관련 인프라가 미비해 승객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었는데 이달고의 주도인 파추카를 철도로 연결하면서 승객들이 좀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셰인바움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정부소속 위원회 폐지와 관련, "지난달 의회가 승인한 7개의 자치 정부 기관을 폐지하면 연간 200억 페소(거의 미화 10억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절감되는 비용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군인 급여 인상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 법정 공휴일	DÍAS FESTIVOS OFICIALES (Días de descanso obligatorios)
1월 01일 신년	9월 16일 독립기념일
2월 05일 헌법의 날	11월 2일 망자의 날*
3월 18일 베니토 후아레스 탄생일	11월 20일 혁명기념일
3월 28일~29일 부활절*	12월 12일 과달루페 성모축일*
5월 1일 노동절	12월 25일 성탄절
5월 5일 뿌에블라 전승기념일*	

(*비공식: 일반적으로 휴무이나 법정 공휴일은 아님)

환율 정보 (오전10:00분 현재 - Banamex)			
멕시코 페소 / USD		한국 원화 / USD	
살 때	19.70	살 때	1,473
팔 때	20.85	팔 때	1,422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 안내	
번호판	끝자리 검사 기간
1, 2번	04-05월 / 10-11월
3, 4번	03-04월 / 09-10월
5, 6번	01-02월 / 07-08월
7, 8번	02-03월 / 08-09월
9, 0번	05-06월 / 11-12월

당국의 무관심에 멕시코는 지금 '노점상 천국'

어느나라든 노점상은 생계문제와 연관되어 있어 쉽게 척결이 되지 않는다. 멕시코도 비슷한 양상인데 특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들을 합부로 내쫓지 못하면서 사실상 당국은 단속을 포기하고 있다.

세계에서 자영업, 특히 노점상이 많기로 멕시코는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

전 세계에서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국가는 미국이 첫째고 한국과 멕시코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간섭받는 직장 생활은 싫고 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만들어낸 자영업(노점상)은 그 나라의 경제사정과 맞물려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게 된다.

멕시코는 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현 정부는 이같은 노점상들에 대해 관대하기로 이전부터 명성이 자자하다.

현 대통령인 웨인바움은 멕시코 시티 시장 시절부터 이들에 대해 호의적인 정책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변함없이 애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이유인지는 몰라도, 멕시코



시티 센트로 지역을 방문해 보면 거의 길을 막다시피하며 주요 길목에 좌판을 벌여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

상행위가 금지된 지역에도 아랑곳없이 노점상은 진을 치고 있다.

국립궁전 앞에는 물론이고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소갈로 광장 인근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크리스마스 등 연말을 앞두고 대목을 보려는 노점상들은 크리스마스 모티브의 모자, 양말, 점퍼, 중국 상품, 수공예품, 휴대폰 액세서리, 해적판 향수, 과자, 음식 등 계절 상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이들에게도 카르텔의 손길이 뻗쳐 오래전부터 매주 자릿세를 내야만 장사를 할 수가 있다.

범죄조직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

다 주는, 마약판매와 더불어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이처럼, 확산되는 노점상에 대해 당국도 최근 심각성을 느끼고 단속의 필요성을 밝히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묵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에는 시티 시장을 역임한 웨인바움 대통령과 이스타팔라과 구청장을 역임한 클라라 부르가다 시티 시장은 같은 모레나당 소속으로 이들에게 비교적 관대한 정책으로 인기몰이를 해 온 공통점이 있어 사실상 노점상에 대한 단속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야3당 소속으로 어렵게 당선된 알레산드라 파우메목 구청장은 이같이 무분별한 노점상들에 대해 시티 정부 차원에서 단속을 해 줄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상급기

관인 시티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그래도 가끔 있어왔던, 쫓고 쫓기는 단속반과 노점상들간의 숨박꼭질은 이제 더 이상 보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유는 바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이들의 반감을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인데 만약 지금같은 정책이 현 정부와 시티정부 임기동안 계속된다면 멕시코는 그야말로 '노점상 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매장을 운영하는 업주들과 통행에 큰 불편을 겪게 되는 일반 시민들이다.

특히, 골목마다 진을 치고 있는 노점상은 범죄의 온상이 되기 쉬워 치안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정부의 정책과도 모순되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지만 시티정부의 노점상 철거를 위한 뚜렷한 대책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노점상은 최근 경기 불황으로 너도나도 골목길로 몰려들고 있는데 여기에는 중국산 저렴한 제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과거보다 좀 더 쉽게 제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점상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 임대 (90m2, 27평형)

위치: Reforma 222

月\$26,000 (관리비 별도)

- 수니루시 Reforma 222, 거주하기에 최상의 위치
- 침실 2개, 시서 1개, 욕실 1개, 거실, 주방
- 세탁기, 건조기 구비
- 고시숙의 평원 같은아파트, 훌륭한 전망
- 수영장, 테니스장, 파티룸, 체육관, 사우나 및 스키룸
- 미시지, 주깁 그랙, 놀이킹 및 비즈니스 센터
- 주차장 1개, 경비 24시간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 해 드립니다.

이메일: Carlos Rodríguez

핸드폰: 55-1948-2853

멕시코, 주 5일제 근무에 대한 '기대'와 '우려' 교차

멕시코 하원이 노동자들의 근로 시간을 주당 현행 48시간(주6일제)에서 40시간(주5일제)으로 줄이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예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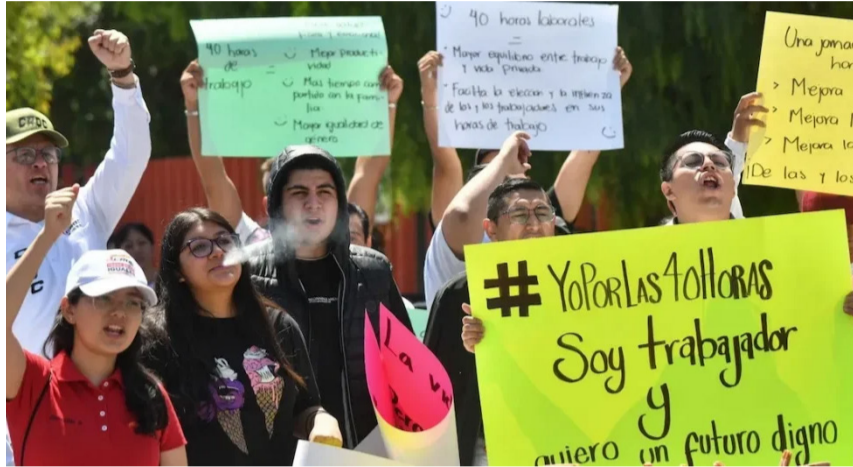
정치권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노동계는 환영을 하지만 경영계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원 없이 주당 근무 시간을 현행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 중소기업이 사라지거나 비공식화될 위험이 높아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제조시설의 자동화에 나서는 등 멀지 않은 시기에 결국은 시행될 주 5일제 근무에 대비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에 해당되며 많은 기업, 특히 멕시코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주5일제 근무에 대한 환경적응이 어려운 상태로 정부의 보조금이나 지원이 없으면 사라지거나 비공식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재유지를 통한 생산성 확보는



제조업의 핵심인데 인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원 최적화를 위해 인공지능 활용과 기술 도구 및 최신 장비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현 경제상황에서 주당 40시간 근무는 기업의 생존자체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는 의미다.

이같은 산업계의 지적에 대해, "근로 시간 단축은 기업이 형식을 유지하고 최적화 진단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기업과의 완전한 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속도 조절론'이 공감을 얻고 있다.

근로자들은 줄어드는 근로시간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급여가 삭감되거나 심지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일부의 우려 섞인 시선도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주 5일제(주40시간)로 확정된다면 헌법 제 123조 개정 발의에 따라 지급처럼 하루 더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해당 시간만큼 급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미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12% 인상된 상태에서 추가 근로수당은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노동자들의 복지차원에서 법률개정을 한 사안으로 정부의 감독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멕시코 경

쟁력 연구소(IMCO)의 데이터 분석 책임자인 Víctor Gómez Ayala는 "제조 및 서비스 고용의 70%로 멕시코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생존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노동 시간 단축은 부문별로 점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당 40시간 근로는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생산 부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적용할 경우 중소기업과 같이 재정적으로 가장 취약한 기업이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인센티브를 동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멕시코 고용주연맹(Coparmex)도 "기업이 위협에 빠지지 않도록 업종별로 점진적으로 적용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하고 있다.

시기상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주40시간은 노동자의 표가 현 정권의 기반인 점을 의식해야 하는 정부, 여당과 멕시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산업계의 비판에 언제부터 시행을 하게 될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운전면허

이제 필수입니다!



TU LICENCIA, UN MUNDO DE POSIBILIDADES.

licenciasinternacionales@outlook.com

www.licenciasinternacionales.com.mx

-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신가요?
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멕시코에서 사용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국제 운전면허 관련 업무에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에게 문의 하세요.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지금 곧바로 연락하세요!

(+52)33 1574 1283

8008384572

많은 한국인들이 우리를 통해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멕시코 정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까?

취임하자마자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25%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발표가 나온 후 멕시코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느라 연일 분주하다.

실제, 트럼프의 발언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인데 발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해가 좀 더 쉬워진다.

가장 큰 이유로는 멕시코나 캐나다 국경을 통해 몰릴듯 몰려오는 이주민들에 대한 양국의 소극적인 대응과 마약유입, 그리고 엄청난 무역적자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비교적 관대하게 이주민을 받아들였던 현 미국 정부의 정책으로 많은 혼란을 야기한데 대한 트럼프의 입장은 명확하다. 합법적 이주는 받아들여지되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모두 추방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트럼프의 주장에 멕시코 정부는 자세를 낮춰 대화와 타협을 주장하면서 그간의 멕시코 정부가 노력해온 점들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오해(?)를 풀고자 한다.

미국행을 위해 남부 국경을 무단으로 넘어 일명, 캐러밴 일행으로 멕시코 국내를 가로지르는 이주민들에 대해 군, 경을 동원 상당부분 이를 막았다는 점을 우선 내세우고 있다.

이외에도 산림녹화 사업에 이들 이주민들에게 일당을 주며 고용하여 미국행을 저지시켰다는 사실과 이들에게 미국행을 포기하면 멕시코에 합법적으로 거주와 일을 할 수 있는 1년간의 비자를 제공하는 등 멕시코 정부가 그간 실시해온 각종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 된다면 멕시코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

이에 대해 "같은 세율로 맞 대응하겠다" 는게 멕시코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즉, 강,은 양면 전략으로 타협이 안되면 어쩔 수 없이 맞 관세로 25%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멕시코에서 제조된 상품 중 대표적인 자동차의 경우 미국으로 수출되면서 관세 폭탄을 받으면 미국에서 들어오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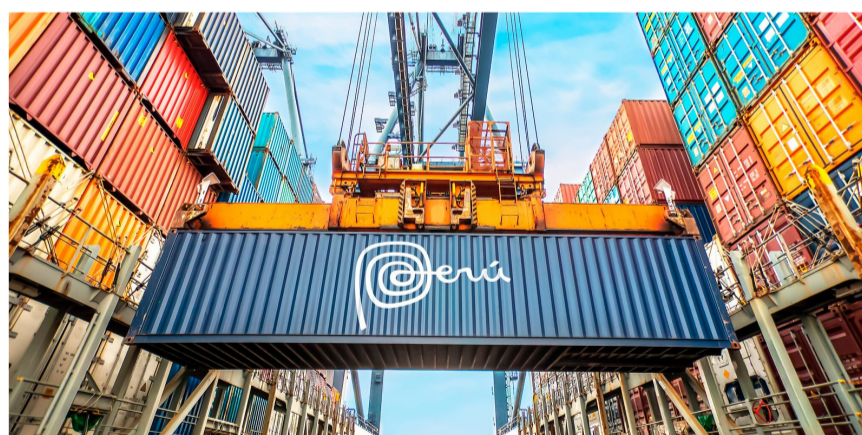
실제, 2022년 기준, 멕시코가 미국으로 수출한 자동차는 700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 중 거의 3분의 1이 차량 부품 부문이었다.

수출때 부과된 관세를 수입으로

장한다. 관세와 관련하여 트럼프가 언급한 또 다른 목표 중 하나인 미국의 전반적인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것에 대해서도 멕시코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해소하기위해 노력중이다.

(멕시코는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다.)

미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등장한 멕시코는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2019년 361억달러 수출에 206억달러 수입, 2020년 329억 달러 수출에 176억 달러 수입, 2021년 388억 달러 수출에 276억 달러 수입, 2022년 459억 달러 수출에 265억 달러 수입, 2023년 480억 달러 수출에



들어오는 부품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결국, 차값이 올라가 피해는 미국인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복안이 깔려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멕시코는 자동차 부문에서 고도로 통합되어 있는데 트럼프가 NAFTA 3자 무역 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을 맺은 당사자라는 점에서 관세로 무역보복을 하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는다고 멕시코 정부는 주

259억 수입 등 매년 큰 폭으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매년 거의 150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는 거의 200억 달러에 육박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이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국경 무역을 통한 무관세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에 반해 수입은 자동차 부품을 포함하여 농산물이 주를 이루고 있어 갑자기 수입을 늘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눈길을 끄는 점은 멕시코 투자가 급증한 중국 자본에 대해 숨고르기에 나섰다 것과 중국산 불법 수입품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예고한 트럼프가 우회적으로 멕시코에 공장을 지어 제품을 무관세로 수출하려는 중국업체들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는 멕시코 정부의 선제 대응 성격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관세를 인상하기 위해 트럼프가 어떤 정확한 수단을 사용할지는 불분명하지만, 취임일인 1월 20일을 기점으로 미국의 대 멕시코에 대한 폭탄 관세는 양국간의 밀접한 무역관계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양국이 모두 피해를 보게 될 것이 자명하기도 하지만, 트럼프가 요구하는 주요 사항에 대해 멕시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불법 이주민의 유입 방지대책, 마약 조직의 미국으로 밀거래 방지, 무역 적자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해결방안이 좀 더 구체화 된다면 명분을 얻은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포기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어 멕시코 정부의 심도있는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경제부(SE)의 정보에 따르면 멕시코가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5개 제품은 자동차 부품, 경자동차, 트럭, 데이터 프로세서, 트랙터이며 섬유, 식품, 음료, 신발과 같은 품목에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미국이 멕시코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5개 제품은 석유류/부탄광물, 자동차 부품, 가스, 엔진, 경자동차이며, 이는 멕시코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총액의 거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내년 보건부 예산 300억페소 삭감에 의료계 반발

“때로는 안면 마스크조차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병원 의료진의 발언이다. 연방 지출 예산 프로젝트 2025에 따르면 보건부는 내년에 300억 페소의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며 이는 16개 병원과 의료 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마갈리(Magali)는 지난 6년 동안 국립암연구소(InCan)에서 간호사로 일했는데, 그 동안 기본적인 작업 기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 “가끔 마스크도 없고 메모할 펜이나 시트도 없을 때가 있다.”며 그는 한탄한다.

공급 부족으로 인해 Magali는 자신의 작업 도구를 구입하기 위해 일주일에 최대 200페소를 지출한다. 교통이나 도로 막힘으로 인해 늦게 도착하여 급여가 공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택시를 타면 비용이 증가한다.

의료용품 부족은 직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는 가족이 환자에게 필요한 물품(예: 사용할 약품을 보관하기 위한 쿨러) 구입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즉, 의료진은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도구가

부족하고 가족은 스스로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내년 예산이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미 이전 정부에서도 의료진에 대한 홀대로 불만이 많았었는데 현 정부는 더 엄격하게 예산을 줄였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대부분의 정부 기관에 긴축정책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고, 보건부 산하 병원도 예외는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경제예산연구센터(CIEP)의 분석에 따르면, 예산 삭감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멕시코 종합병원(Hospital General de Mexico), InCan, 살바도르 주비란 국립 의학 및 영양 연구소(el Instituto Nacional de Ciencias Medicas y Nutrician Salvador Zubiran), 마누엘 벨라스코 수아레스 국립 신경외과학 연구소(Instituto Nacional de Neurologia y Neurocirugia Manuel Velasco Suarez) 등이다.

예산 삭감을 겪게 될 다른 기관으로는 헤아 곤살레스 종합병원(Hospital General Gea Gonzalez), 멕시코 종합병원(el Hospital General de Mexico),

멕시코 아동병원(el Hospital Infantil de Mexico), 멕시코 후아레스 병원(Hospital Juarez de Mexico), 국립 심장학 연구소(Instituto Nacional de Cardiologia), 국립 호흡기 질환 연구소(Instituto Nacional de Enfermedades Respiratorias), 국립 노인병 연구소(Instituto Nacional de Geriatria) 등이 있다.

또한 국립 유전체 의학 연구소(Instituto Nacional de Medicina Genemica), 국립 소아과 연구소(Instituto Nacional de Pediatria), 국립 주산의학 연구소(Instituto Nacional de Perinatologia), 국립 정신 의학 연구소(Instituto Nacional de Psiquiatria), 국립 재활 연구소 및 국립 공중 보건 연구소(Instituto Nacional de Rehabilitacion y el Instituto Nacional de Salud Publica)도 있다.

이같은 의료계 반발에 모레나(Morena) 연방 하원 원내총무인 리카르도 몬레알(Ricardo Monreal)은 200억 페소를 추가 예산으로 보건 부문에 배정할 뜻을 나타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밝히지 않았다.

실제, 멕시코 공립병원 일부는

붕대, 주사기, 탈지면, CT 스캔, 심지어 소독용 알코올도 없다.

병원에 항생제가 없어 환자 스스로 500~600페소에 항생제를 구입해야 하는 환자들도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의사들은 2019년 의약품 공급하던 Seguro Popular가 사라진 이후 의약품 부족 현상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다.(현재는 국가가 통합,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보건부의 예산 삭감은 결국 사회 경제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과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치아파스 등 비교적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의 피해가 클 전망이다.

이들 지역 병원은 IMSS-Bienestar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보건부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

의료진 부족으로 수천명의 쿠바 의사를 수입하면서도 정작 자국 보건에는 예산 삭감으로 의료진 반발을 사고 있는데 멕시코 정치권의 최종 예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석유절도 멕시코 전역에서 횡행, 싸다고 사용하면 차량에 심각한 손상 초래

석유 송유관을 뚫어 몰래 기름을 훔쳐 판매하는 절도범들을 일컫는 일명 'Huachicol' 멕시코 전역에서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 절도는 2020년 이후 급증했는데 불법 연료 밀매 네트워크는 멕시코 32개주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 전국 대부분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명, 후아치콜(huachicol)로 불리는 절도범들은 대부분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재무부에 재정적인 손실을 입히는 것

은 물론 자동차 운전자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예전에는 유카탄 반도에서 연료가 프로그레소(Progreso)항구에 직접 도착해 그곳에서 유통되었기 때문에 불순물이 섞인 것이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다른지역에서 훔친 연료를 섞는 과정이나 양을 늘리기 위해 불순물을 섞어 팔기도 한다”고 휘발유의 품질을 검증하는 연구소인 CIEFSA의 책임자인 Andres Gutierrez는 지적했다.

심지어, 이렇게 훔친 휘발유는 정부기관에도 구매가 이루어지

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의 30% 이상이 이미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 조직은 연료 공급망, 특히 마케팅 담당자 및 운송 업체에 압력을 가해 구매를 강요하고 있는데 당국의 대응 역량이 부족해 사실상 방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 규제 위원회(CRE)에 따르면, 훔친 연료를 주입한 자동차의 손상으로 불만을 제기한

경우가 최근 몇 년 동안 10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주유소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약 33%의 매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연료 절도로 인한 피해가 재무부는 물론, 주요소, 운전자까지 확대되면서 문제가 심각하지만 당국의 대응력은 이에 미치지 못해 갈수록 이같은 연료 도둑은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주유소에서 연료구매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유람선 세금 인상 여파, "1천만명 관광객 줄어들것"

내년부터 크루즈선을 타고 멕시코를 입국, 관광하는 경우 개인마다 약 42달러의 추가 세금이 붙게 될 예정이다. 관광 당국은 심각한 관광객 감소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멕시코에 도착하는 크루즈 승객에 대해 47달러의 새로운 입항 수수료 징수가 시행되면 멕시코 관광 항구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항구가 되어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멕시코 해운 대리점 협회(Amanac)는 경고



했다. Amanac은 이 새로운 세금이 2026년부터 주요 크루즈 노선의 노선을 변경하고 선박 도착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우려를 나

타내고 있다. 하선 비용이 다른 항구에 비해 최대 213% 증가하면서 멕시코가 세계 관광 시장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사업체는 현재 크루즈 승객이 DNR(Non-Migrant Right)로 알려진 '환승 면제' 제도에 따라 도착하지만 이 면제를 철폐하고 새로운 권리를 부과하면 5달러의 주세와 함께 세금이 부과되는데 승객당 총 비용은 47달러로 늘어날 것이다. 세금 증가로 멕시코 항구의 경쟁력은 물론 업계에서 창출

되는 경제적 이익을 위협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 지적이다.

크루즈 부문은 연간 직접 비용으로 약 10억 달러의 수익과 2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멕시코는 2025년 최대 1천만 명의 승객과 3,300회 이상의 선박 기항을 잃을 수 있으며, 이는 관광 항구의 지역 경제와 수천 개의 소규모 공급업체 및 국영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 본회의, 전자담배 생산과 상업화 금지 법안 통과

하원이 전자담배와 펜타닐의 불법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

하원 본회의는 특히, 전자담배의 생산과 상업화, 그리고 펜타닐의 불법 사용과 같이 법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독성 물질, 화학 전구체 및 합성 약물의 생산과 유통을 금지하는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은 집권 모레나과 연합세

력인, PT, PVEM가 찬성 327표, PRI, PAN, MC가 반대 118표로 가결되었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은 전자 담배 및 기타 유사한 시스템 또는 장치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법으로 명시한대로 처벌하고 독성 물질, 화학 전구체, 펜타닐 및 기타 승인되지 않은 합성 약물의 생산, 유통 및



소외, 불법 사용을 처벌한다." 는

내용이다.

그동안, 법 조항의 미비로 처벌이 어려웠던 전자담배 유통과 사용이 이번 하원 통과를 계기로 단속이 가능하게 된 셈이다.

하원을 통과한 법률안은 상원으로 넘어갔으며 상원의 심의를 거쳐 가결이 되면 공표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멕시코에서 가장 오염된 해변은 어디일까?

Cofepris(멕시코 국립 보건연구원)가 멕시코 해변 289곳에 대한 위생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멕시코 국립 보건연구원(Cofepris)은 국립 공중 보건 연구소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2024년 겨울 방학 기간 몇 주 전에 해수 샘플링에 나섰다.

이 분석의 목적은 어떤 해변이 이용객에게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Cofepris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289개 해변에 대한 실험실 분석을 위해 2,362개의 해수 샘플을 채취했다. 결과는 289개 해



변 중 6곳을 제외한, 283곳의 해변이 레크리에이션 용도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2024년 겨울에 휴양지로 적합하지 않은 멕시코의 해변은 어디일까?

이번 분석에서 멕시코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해변은 다음과 같다.

Baja California: Playas

Rosarito 해변

Tijuana: Rosarito 해변

Guerrero: Acapulco Playa

Icacos 해변

Jalisco: Puerto Vallarta Playa

Oasis 해변

2024년 겨울 휴가를 보내기에 가장 좋은 해변은 어디일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온 해변은 다음과 같다.

바하 캘리포니아 수르 (Baja California Sur)

캄페체 (Campeche)

콜리마 (Colima)

치아파스 (Chiapas)

게레로 (Guerrero)

할리스코 (Jalisco)

미초아칸 (Michoacán)

나야리트 (Nayarit)

오하카 (Oaxaca)

킨타나 루 (Quintana Roo)

시날로아 (Sinaloa)

소노라 (Sonora)

타바스코 (Tabasco)

타마울리파스 (Tamaulipas)

베라크루즈 (Veracruz)

유카탄 (Yucatán) 등이다.

한편, 즐거운 휴가 기간 동안 해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떠날 때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Cofepris는 당부하면서 수질과 관련된 모든 이상 현상을 발견했을 경우 관광지마다 설치된 해변 위원회와 Cofepris 및 Semarnat 웹사이트에 직접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Citi-Banamex은행 합병 9년여만에 각자의 길로..

지난 2022년에 Citigroup은 Banamex와 함께 멕시코 소비자 금융 사업 부문의 기능 종료를 발표한 바 있다.

준비기간을 거쳐 3년여만인 지난 12월1일 공식적으로 두 은행은 결별했다.

전 세계 36개 국가에 진출하면서 약 3300개의 지점을 갖고 있는, 1812년 뉴욕에서 문을 연 Citi은행이 멕시코 Banamex은행과 합병한지 9년만에 다시 갈라지게 됐다.

(시티은행은 2001년에 Banamex은행을 인수했지만 공식적으로 통합을 한 것은 2016년이다.)

이와 관련, 시티 그룹은 "12월 1일부터 완전한 분리를 통해 Citi는 이제 멕시코에서 Grupo Financiero Citi México와 Grupo Financiero Banamex라는 두 개의 별도 금융 그룹으로 운영하게 된다"고 밝혔다.

Citi International의 Ernesto Torres Cantó 이사는 "Citi가 거의 100년 동안 멕시코에서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이 나라는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라면서 멕시코 고객에 대한 헌신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다.(시티그룹은 멕시코에 1929년 첫 문을 열었다)

특히, "국제화를 모색하는 금융 기관, 정부, 투자자, 다국적 기업 및 국내 기업에 금융 상품 및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3,00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Citi의 멕시코 팀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120년 이상 중단 없는 입지를 바탕으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했다.

비록, 분리는 됐지만 자산 관리 서비스, 소비자 대출, 주택 모기지 대출, 예금, 급여 서비스, 지불 및 모든 범위의 소매 금융 서비스를 유지할 예정인데 이외에도 신용 카드, 퇴직자산관리, 보험,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Banamex Cards, Afore Banamex, Seguros Banamex 및 Pensiones



Banamex를 비롯해 상업 은행 상품도 기존처럼 모두 취급하게 된다.(시티은행의 주 고객은 기업이며 바나멕스 은행은 소비자 금융이 주력이다.)

갈라선 한 쪽인 바나멕스(Banamex)은행은 혁신적인 온라인 banking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전국 약 1,300개 지점과 100개에 달하는 퇴직연금 센터(CARE), 9,100개 이상의 ATM으로 구성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거의 2천만 명의 고객에게 금융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여 멕시코에서의 140년 전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면서 "현재, 39,000명 이상의 직원뿐만 아니라 Banamex의 예술 컬렉션과 역사적인 건물, 사회 및 문화 협회가 계속해서 Banamex 금융 그룹의 일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나멕스 은행은 멕시코에 1884년 첫 개점을 했다.)

두 회사가 분리된 후에도 고객의 계좌와 카드에는 변경이 없기 때문에 모든 Banamex 사용자의 은행 계좌는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즉, 기존의 고객 번호, 계좌 번호 및 CLABE 계정은 그대로 유지되며 직불 계좌, 신용 카드, 모기지 대출, 중소기업 대출, 급여 대출 또는 투자 등 은행과 계약한 상품에도 이전과 변경 사항이 없다.

이와 관련, Banamex은행은 "분리로 인한 고객에 별도 연락이 가지 않는다"면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시티, 바나멕스 은행의 분리를 이용해 금융사기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속지말라"고 당부했다.

필요한 경우 콜센터 번호(55 12 26 26 39)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 3분기 말 국립은행증권위원회(CNBV) 자료에 따르면 CitiBanamex는 BBVA, Banorte 및 Santander에 이어 1조 5,200억 페소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티그룹이 바나멕스 은행 매각 발표를 하면서 은행 인수에 대기업들이 관심이 상당했었다.

멕시코의 상징적인 은행을 인수하려던 기업들의 경쟁이 결국은 실패한 이유, 매각 전 과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22년 1월 Citi 그룹은 소비자 금융과 비즈니스 금융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거의 3년만의 일이다. 미국 대기업이 멕시코에서 소매금융을 포기하자 곧바로 논란이 일어났다.

당시 Citibanamex의 제도 개발, 경제 연구 및 커뮤니케이션 부문 기업 이사인 Alberto Gomez Alkali는 이러한 결정이 도매 사업, 즉 기업 및 투자 금융에 집중하려는 Citi의 전략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았다.

바나멕스 은행 인수에 큰 관심을 보였던 대기업들은 대통령의 지나친 간섭으로 모두 뜻을 접었다.

결국, 매각은 실패하고 원래대로 각자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됐다. 사진은 은행 인수에 적극적으로 있던 기업대표들이다.

Citi의 발표 이후, 멕시코 국내 최대 자산 보유자들이 Banamex 인수에 관심을 표명했다.

Carlos Hank Gonzalez가 이끄는 Grupo Banorte는 "멕시코 최대 은행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라며 인수를 위해 분석한 최초의 인물이다.

씨티의 발표가 있는 지 불과 몇 시간 뒤에는 Banco Azteca의 주인인 Ricardo Salinas Pliego가 "바나멕스 인수에 대한 분석을 지시했다"고 밝혀 경쟁자로 나섰다. 멕시코 최고 부자인 Carlos Slim도 빠지지 않았다.

자신이 소유한 인부르사(Inbursa)은행을 통해 매각 과정에 관심을 표명하고 은행 인수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다른 기업들과 함께 컨소시엄에만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스페인 금융 대기업인 산탄데르(Santander)가 Banamex 매각 절차에 관심을 나타내기도 하는 등 경쟁이 치열했다.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생겼다.

당시 대통령이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전 대통령이 은행 매각에 간섭을 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멕시코 사업가들이 Banamex를 인수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첫 번째로 내세웠다. 심지어, 멕시코인이 소유했던 은행을 국유화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두번째로, 전 대통령은 체납세액이 없고,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문화재를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에 영구 전시해야 한다는 일련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 두번째 조건은 당시 거액의 세금 체납 문제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Banco Azteca의 주인인 Ricardo Salinas Pliego를 사실상 배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는데 당사자인 Ricardo Salinas Pliego는 가장 적극적으로 있었지만 "투자 시간과 비용 때문에 바나멕스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페인계 금융 대기업인 산탄데르(Santander)는 "자사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경주에서 물러났다.

8면에서 계속..

4년만에 전 구간 개통 마야열차, 멕시코 관광의 새 이정표

멕시코 연방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인 마야열차(Maya Tren)가 드디어 7개의 모든 노선이 개통됐다. 공사를 착공한지 4년6개월 만이다.

2018년 12월 16일(상징적)

2020년 6월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작년에 일부 노선이 개통되면서 운행에 들어갔으나 올해 2024년 12월 15일 섹션 6과 7 노선을 마지막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처음 이 공사를 시작할 당시 반대가 심했다. 가장 큰 이유는 환경 파괴였다. 공사를 중지시키기 위한 각종 소송이 줄을 이었고 수십차례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때 법원의 판사가 공사 중지 판결을 내리면서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았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오브라도르는 극대노하면서 법원 판사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결국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는 선거법이 개정되어 내년 첫 투표를 앞두고 있다.)

총 연장1,554km 에 이르며 34개 역을 지나게 되는 마야열차는 연인원 60만명이 동원되어 4년만에 완공됐다. 총 공사비는 3천2백억 페소가 투입됐다.

노선별 출발역과 도착역은 다음과 같다.

(Tramo 1)

Chiapas주 Palenque에서 출발-Campeche Escarcega 도착



(Tramo 2)

Campeche Escarcega 출발-도착 Campeche Calkini 도착

(Tramo 3)

Campeche Calkini 출발-Yucatan Izamal 도착

(Tramo 4)

Yucatan Izamal출발-Quintana Roo주 Cancun 도착

(Tramo 5)

Norte Cancun Aeropuerto 출발-Quintana Roo

Puerto Morelos 도착

(Tramo 5)

Sur Puerto Morelos 출발-Tulum 도착

(Tramo 6)

Tulum 출발-Bacalar도착

(Tramo 5는 같은 지역에서 다른

방향으로 출발)

개통식에서 Sheinbaum 대통령은 마야 기차 건설을 "기술과 환경 문제를 극복한 역사적인 위업"이라고 묘사하면서 관계자들을

치하했다.

개통식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전 대통령이 출발 신호를 보낸 지 1년이 되는 날에 맞춰 그의 후임자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Claudia Sheinbaum Pardo) 대통령이 주지사 및 연방 공무원, 공사에 참여한 軍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 테이프 커팅을 했다.

대통령은 "역사적 위업"이라고 묘사한 마야 열차는 "인프라 건설 그 이상을 의미한다" 면서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엄청난 규모의 철도 건설 공사를 마무리 한 것에 대해 크게 고무된 모습이였다.

특히, 환경파괴라는 비판속에 법원의 제동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많은 시간을 허비했음에도 예정된 기간에 마무리 된 것에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생태학적 성과 중 이 프로젝트는

9개의 새로운 자연 보호 구역과 7개의 환경 보호 구역을 추가했으며 그 면적은 170만 헥타르가 넘는다.

Mayan Train 수지에 따르면 운행 첫 해에 603,182명의 승객이 탑승했으며 이는 목표로 설정한 300만 명의 사용자 중 20%에 해당 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저조한 편이다.

탑승한 승객 중 외국인 관광객은 33,547명, 내국인은 281,593명, 현지인은 167,901명, 노인, 학생, 교사, 장애인은 120,141명에 불과했다.

Quintana Roo의 관광부 장관인 Bernardo Cueto Riestra는 "올해가 운영 부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Maya Train 프로젝트를 주의 관광에 통합할 수 있는 전략을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서 "올해 첫 해를 마야 열차의 매우 매력적인 관광 상품에 대한 시험해로 삼고 싶다" 말했다.

관광 상품 측면에서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주내 공항 및 역과의 역동적인 연결이 이미 생성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야열차는 멕시코 관광의 새로운 이정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마야열차의 티켓 가격은 국제 관광객 \$1174.50 이며 국내 관광객은 \$883페소, 현지 여행자는 \$58 페소를 받고 있다.

7면에 이어..

이어, 스페인계 금융 대기업인 산탄데르(Santander)는 "자사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면서 경주에서 물러났다.

작년 10월에는 Banorte도 프로세스에서 제외되었고 11월에는 Inbursa은행을 소유한 멕시코 최대 자산가 카를로스 슬림(Carlos Slim)도 분석 및 운영에서 가치가 없음을 발견한 후 탈퇴를 발표했다.

카를로스 슬림(Carlos Slim)은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구조, 형식, 철학, 사고 방식 및 행동 방식이 우리 기업과는 거리가 멀다" 는 이유를 대면서 손을 뗐다.

대통령의 지나친 간섭에 하나둘 바나멕스 은행 인수에 뜻을 접었는데 결국, 두 명의 선수가 경주에 남았다.

Grupo Mifel의 소유자인 Daniel Becker와 Grupo Mexico의 German Larrea였다.

그러나, 비교적 소규모인 은행인 Grupo Mifel을 두고 "새우가

고래를 삼킨다" 는 비판이 일면서 물러나면서 Grupo Mexico의 German Larrea가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자로 물망에 올랐다. Lopez Obrador 대통령도 "좋은 눈으로 보았으며 대통령궁에서 그 사업가를 만났다"고 말해 인수는 기정사실처럼 굳어졌다. 여기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Grupo Mexico와 이전 멕시코 연방 정부는 베라크루즈의 Coatzacoalcos-Medias Aguas 구역에 있는 컨소시엄의 철도 회사인 Ferrosur의 시설을 정

부가 해군을 동원하여 강제로 빼앗으면서 정부와 충돌했다.

당시, 50년간 임대계약을 정부와 맺었었는데 마야 철도사업에 거액의 통행료를 내지 않기 위해 "철도는 국가재산" 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로 하루아침에 강제로 빼앗긴 것이다.

결국 대통령의 지나친 간섭에 의해 시티그룹이 원했던 직접 매각은 실패로 돌아가고 바나멕스 은행이 자체적으로 영업하는 방식, 즉 원래대로 돌아간 것이다.

멕시코시티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곳은?

연말이 되면 누구나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멕시코 하면 눈과는 거리가 먼 곳으로 그 환상은 금세 깨지기 쉽다. 그런데 멕시코 시티에서도 멀지 않은 곳에 눈을 마주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 소개한다.

시티 근처에 눈이 쌓여 겨울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곳



시티에서 눈이 내리기를 기다리는 것은 거의 기적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특히, 멕시코 수도에 마지막으로 눈이 내린 때는 1967년으로 약 60여년 전에 딱 한 번 있었다.

그만큼 희귀한 눈을 즐기고 싶다면 시티 근처에 있는 눈 쌓인 곳을 찾아 여행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 황홀스러운 이 자연의 광경을 보기 위해 멕시코시티에서 그리 멀리 갈 필요는 없다.

현재 주변 지역이 하얗게 칠해져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이다. 눈 내리는 겨울을 즐길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다.

쿵브레스 델 아후스코 국립공원 (Parque Nacional Cumbres del Ajusco)

이 곳에서는 CDMX를 떠날 필요조차 없다. 비록 도시의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정도 수고를 감수한다면, 여기에서는 눈 내리는 것을 즐기고 주변의 겨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모르고 있는데 연말 휴가 기간에 부담없이 찾아볼 수 있는 곳이다.

위치: Cerro Pico del Águila km 21, Col. Héroes de 1910.

(가는 방법)

차량으로 이동 시 소나로사 기준, 약 35.7km, 1시간 30분 소요된다. 목적지 방향은 Six flags mexico 지나서 Carretera Picacho-Ajusco 방향으로 가면 된다.

네바다 데 톨루카 (Nevado de Toluca)

수도 근처에서 눈을 볼 수 있는 가장 인기 있는 장소로 잘 알려져 있다.

국립공원인 Nevado de Toluca로 이곳에 위치한 Xinatcatl 화산 지역이다. 한국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다.

날씨에 따라 당국이 통행로를 폐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만큼 날씨 변화가 변덕스러운 곳이다. 일반적으로 휴일에 들어서 투어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많은 방문객이 이곳을 찾는다. 단지, 시티에서는 보기 힘든, 겨울 풍경을 보기 위해서다.

입장료는 50페소다.

(가는 방법)

소나로사 기준 약 2시간 50분 정도 소요된다.

주도인 Toluca de Lerdo에서 남서쪽으로 22km, Toluca-Ciudad Altamirano 고속도로를 따라 38km 도착할 수 있으며 Nevado de Toluca 방향으로 13km 비포장 도로를 이용하면 된다.

Mexico-Marquesa 고속도로를 타고 Paseo Tollocan-Calzada del Pacífico로 이동하여 Toluca 고속도로와 연결된다.

이즈타치우아틀-포포카테페틀 국립공원 (Parque Nacional Iztaccíhuatl-Popocatepetl)

Edomex, Puebla 및 Morelos 사이에 위치한 이 공원은 4만 헥타

르에 달하는 놀라운 생물 다양성을 자랑하는 곳이다. 멀리서 화산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곳을 방문한 가치를 느끼게 해 준다.

겨울에는 눈이 내리는 지역이기도 하며, 추위로 인해 마치 북극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입장하려면 30페소를 지불해야 한다.

위치: Plaza de la Constitución 9, Centro, 56900 Amecameca de Juárez, Mx.

(가는 방법)

Ignacio Zaragoza 도로를 타고 Puebla 방향으로 고속도로를 따라 직진. Cuautla와 Chalco로 가는 우회로를 타고 톨게이트를 지나 Amecameca(약 22km)까지 계속 직진. Amecameca 중심에 도착하면 Cuautla 방향으로 가는 길을 이용, 약 2시간 소요

La Malinche 또는 Matlalcuíyatl 국립공원

푸에블라(Puebla)와 톨락스칼라(Tlaxcala) 사이에 있는 이 국립공원은 하이킹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일년 중 가장 추운 시기에 내리는 눈은 자연과 완벽하게 공존할 수 있는 곳이다.

야외에서 아늑한 오두막을 빌릴 수도 있고 캠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입장료는 60페소다.

위치: Huamantla에서 서쪽으로 13km.

(가는 방법)

예상소요시간 약 3시간 15분. 멕시코-푸에블라 고속도로 150D를 타고 San Martín Texmelucan □ Tlaxcala /

Mexico 117D 방향으로 직진 Tlaxcala / Huamantla de Arco Norte / Mexico 57D 방면 출구로 나가면 된다. 이어 멕시코 117D를 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피코 데 오리사바 국립공원 (Parque Nacional Pico de Orizaba)

피코 데 오리사바(Pico de Orizaba)는 멕시코 전체에서 가장 높은 산일 뿐만 아니라 푸에블라와 베라크루즈 사이의 자연 보호 지역에서 하이킹, 산악자전거, 동식물 관찰, 눈 즐기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다.

폭설 시즌에는 입장 수요가 많을 수 있으니 공식 페이스북에 나오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한 후 출발하는, 신중하게 여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위치: Pte. 20 28, Sta Maria Tlachichilco, 94350 Orizaba, Ver.

(가는 방법)

약 7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상당히 먼 곳이다.

Ignacio Zaragoza- Mexico-Puebla 고속도로 이용

Orizaba-Puebla 방면 출구로 나가서 Fortín □ Huatusco, Quinta Los Cedros Iturbide 및 Bernardo Aguirre를 타고 목적지로 가면 된다. 당일 코스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사진속의 눈을 보면서 멕시코에서도 이런곳이 있구나? 하고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곳들이다.

그러나, 실제 당일이나 이전 날씨에 따라 눈이 없을 수도 있으니 이점 감안하고 방문해야 실망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든든한 방한복 갖춰입고 일행 여럿이서 함께 출발하기를 권하며 비상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사전 숙지하고 방문하는 것이 안전한 여행이 될 것이다.

여기는 멕시코이니깐...

연말 성수기 앞두고 중국산 밀수품 집중 단속

“불법 상품 취급시 건물 몰수까지 한다”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중국산 밀수품에 대한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됐다. 분위기가 이전과는 사뭇 다를 정도로 강경하다.

몇 번의 단속을 받았음에도 같은 자리에서 계속 밀수품 판매가 이루어지자 이번에는 경제부까지 나서 해당 건물을 몰수하겠다고 나섰다.

시내 대표적인 중국제품 취급 상가인 이사사(Izazaga) 89번지 건물은 이전에도 몇 번 당국의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내거나 폐쇄되기도 했는데 암묵적인 관련 부처의 미온적인 태도로 유야무야 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난 목요일 멕시코 정부는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연방법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밀수 상품을 압수하겠다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며 멕시코 상표권을 관리하는 IMPI 조사관 50명, 대외무역관리 12명, 경찰 등 약 260여명이 동원됐다.

합법적인 서류가 없는 상품에 대해 모두 압수했으며 특히, 경제부(SE)는 소유권 소멸에 관한 연방법 8조 3항에 근거하여 수 차례 법을 위반하며 영업을 해온 해당 건물의 몰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



다. 불법적으로 상품을 밀수하고 국내에 도입 및 유통하는 반복적인 관행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와 관련, “이것은 연방 소비자 보호청(Profeco), IMPI(특허청) 및 국세청(SAT), 주 및 지방 정부 당국과 협력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할 여러 작전 중 첫 번째 작전”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지적 재산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멕시코 정부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하자 정부는 창작자의 상표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적극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약 26만여점의 밀수품이 압수되었는데 대부분 연



말 대목을 앞두고 있던 제품들이었다.

시티 정부도 연방 정부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앞으로 시티에서 밀수품을 판매하거나 보관에 사용되는 건물에 대해 임대 소유주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혀 건물주에 주의를 촉구했다.

경제부 장관은 “불법 영업이 이뤄지는 시설의 소유주도 범죄 행위의 동조자”라며 “건물을 임대하려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합법적인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임대인의 책임을 강조했다.

연방 정부는 앞으로 멕시코 32개 주에서 같은 작업이 수행될 것이라며 모든 부처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멕시코 건물 몰수법에 따르면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재산의 소유자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공공부에 신고하지 않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건물을 몰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멕시코 최대의 성수기인 연말은 시내 재래상가를 중심으로 중국산 제품이 엄청난 양으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대부분이 밀수품으로 알려지고 있다.

막대한 자금력으로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불법 영업을 해온 것에 대해 눈감아 주던것이 이번 경제부의 합동 단속으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강경한 분위기가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멕시코, 미국, 캐나다 무역협정(T-MEC)에 따른 약속의 일환으로 지난 주 목요일 멕시코 시티 중심부에서 100,000개 이상의 중국 불법 복제 제품을 압수한 이후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편, 이번 불법 수입품에 대한 단속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 이주 화물

숙련된 인원과 장비로 직접 서비스 합니다.

- 30년 경력
- 신속한 견적
- 양질의 풍부한 포장재료 사용 (OUT BOUND)
- 다양한 사양의 벤 & 박스트럭 보유 (1톤-25톤)

PanTrans HHGDS

홍승표 전무: sphong@pantrans.com.mx
 Cell Phone: 55 5457 5254
 이남수 이사: leens@pantrans.com.mx
 Web: www.pantrans.com.mx
 YouTube: PanTrans México



몬테레이 / 시티

비자문제, 걱정 마세요! 완벽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개인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유형의 비자업무 취급

- ◆ 취업비자 \$10,000
- ◆ 임시 및 영주권자 신분 변경 \$6,000
- ◆ 직장, 주소, 결혼 여부 변경 \$4,000
- ◆ 일 할 수 있는 비자로 변경 \$6,000
- ◆ 고용주 등록 증명서 발급 \$6,000
- ◆ 비자연장 \$5,000
- ◆ 국적변경 \$4,000
- ◆ 이민서류 교환 \$4,000

RYF CONSULTING, S.A. de C.V.

주소: Aguilas # 200 A Colonia, Las Golondrinas Apodaca N.L.
전화: Tel(oficina) (81) 83324197, Cel. 8119445318 Lic.

멕시코 기업 범죄 비용 작년 17.4% 급증

멕시코의 기업 보안 및 범죄 비용은 2023년에 1,243억 페소로 인플레이션을 빼더라도 2021년에 비해 17.4% 증가했다고 멕시코 통계청(Inegi)가 어제 발표했다.

Inegi(멕시코 통계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멕시코의 기업 범죄 비용은 17.4%나 치솟았는데 2023년 피해액은 1,243억 페소에 이른다. 피해 기업은 이 금액의 54%에 해당하는 672억 페소를 예방 비용으로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보호 조치에 대한 지출과 범죄로 인한 손실로 인한 사업체당 평균 범죄 비용은 4,451페소로 2년 전보다 8.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회사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영향이 달랐다.

예를 들어 제조업 피해자의 경우 평균 9만8654페소로 2021년보다



18.7% 늘어난 반면 대기업은 평균 136만7000페소를 신고했다. 두 경우 모두 보호 조치와 범죄로 인한 손실에 대한 지출이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2021년 120만 개(24.6%)에서 2023년에는 130만 개(전체의 24.2%)의 사업장이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요 업종별 범죄 발생률을 보면 상업 시설의 31.5%가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

조업은 21.6%, 서비스업은 24.2%였다. 사업 규모별로는 대규모 경제 단위의 47.3%, 중간 규모 49.0%, 소규모 40.7%, 소규모 26.3%가 범죄의 피해자였다. 202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발생률은 3개 주에서 감소했고 10개 주에서는 증가했으며 19개 주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기업 10,000개당 가장 높은 비율은 소노라(Sonora)에서 3,728개로 등록되었으며 Aguascalientes, 3,638 및 Querqtaro, 3,462개였다.

타마울리파스에서는 1,756곳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 오히카(Oaxaca)는 1,810개, 게레로(Guerrero)는 1,825개로 나타났는데 기업당 평균 2.2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범죄 행위 4개 중 약 1개는 강탈과 관련이 있으며 여기에 상품,

돈, 물품 또는 물품의 절도가 16.4%를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전체 범죄의 42%를 강탈에 해당한다. 이어, 절도나 부패행위로 인한 범죄행위는 37.5%를 차지했다.

반면, 피해를 당한 기업들의 신고는 12.2% 였는데 수사로 이어진 경우는 9.7%에 불과하다.

대부분, 기업에 대한 범죄에 거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기업들이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당국의 무관심이 거의 60%에 이르고 있으며 시간손실 등의 요인이 33.4%, 경범죄로 간주되는 비율은 14.9%다.

즉, 경찰을 못 믿겠다는 것에서 시간만 빼앗긴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화물열차 강도 사건 급증, 주요 도난품은 산업제품, 곡물, 자동차 부품

고속도로 화물차 강탈사건이 급증하면서 비교적 안전한 운송 수단으로 인식되던 화물열차도 최근들어 강도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들어 1~7월까지 강탈사건이 발생한 건수로는 2,674건에 이른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두 배가 늘어난 수치다.

가장 많이 강탈당하는 품목은 산업제품, 곡물, 자동차 부품이다.

철도교통규제청(Railway Transport Regulatory Agency)에서 입수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정부의 여객 열차 강화 계획에 맞춰 화물 운송이 늘어났는데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국내 화물 철도 도난 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2% 증가했다.

인프라 통신 교통부(SICT) 산



하 조직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첫 7개월 동안 화물 도난 사건이 2,674건 신고되었으며, 2023년 같은 기간에는 신고된 건수가 1,261건이었다.

올해 증가율은 2022년 같은 기간 대비 지난해 관찰된 증가율 21%를 웃도는 것으로, 화물철도 도난 사건 발생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품 또는 화물 유형별로 2024년 도난 신고가 가장 많은 상품

은 산업용 제품으로 전체 발생률의 19.6%를 차지했다.

2위는 곡물, 종자 및 그 파생상품으로 전체의 17.6%를 차지하며, 자동차 부품 하위 그룹은 17%로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ARTF 데이터에 따르면 이 세 가지 항목은 전체 도난 신고 발생률의 54.2%에 해당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 문제는 앞으로 있을 멕시코, 미국, 캐

나다 간의 조약(T-MEC) 재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 열차 도난 사건의 증가는 연방 정부가 여객 열차용 선로 3,000km를 확보하고 30년 전에 존재했던 것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우선순위로 발표한 가운데 발생했다.

이같은 강탈사건이 빈발하자 인공지능과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운송업체도 대응에 나섰다. 수상한 사람들이 접근하면 경보가 울려 주변에 알리는 효과를 내기도 하지만 큰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까지는 고속도로 화물 강도보다는 덜 하지만 열차에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최근들어 강도행각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카르텔 '보호비' 요구에 탈출하는 자영업자

멕시코 국가 공안 시스템 사무국 (SESNSP/Secretariado Ejecutivo del Sistema Nacional de Seguridad Publica)에 따르면, 상인들에 대한 카르텔 조직의 강탈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후안은 톨루카 (Toluca) 수도권의 한 시장에서 약초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중 일부 남성이 수수료를 받으러 나타났다. 그들은 일명 '바닥세 (Derecho de Piso)'로 불리는 세금(?)을 요구하며 10만페소(약 7백만원)를 요구했다.

Juan은 몇 달 동안 간신히 지불을 회피했지만 위협은 점점 더 커졌다. 그는 시간을 벌기 위해 협상을 하고 싶었지만 불가능했다. 남자들은 협상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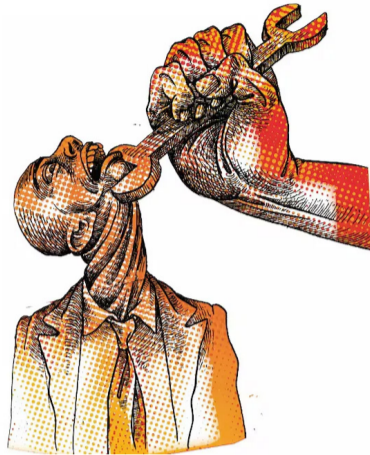
후안은 결국 쇠파이프로 구타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2003년 2월 17일 오후 1시쯤, 과나후아또에서 안토니오는 두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의 철물점에 도착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무장한 채 도착했고 그에게 울리는 전화기를 건네주었다.

전화속의 목소리는 자신이 Jalisco Nueva Generacion Cartel(멕시코 최대인 신세대 카르텔 조직) 소속이며 계속 영업하려면 일회성 수수료 60만 페소(약 4천2백만원)를 지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들었다.

"자릿세를 주지 않으면 주머니에 총알을 넣어줄 것" 위협이 뒤따랐다.

돈을 주지 않으면 자신과 가족들이 해를 당할것 같아 협상끝에 10만 페소를 지불하는 것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를 모면했다.

이 상인들의 이야기는 연방 사법부의 판결에 기록되었으며,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Andres Manuel Lopez Obrador) 정부 기간 동안 강탈 범죄에 대한 54,424건의 고소장 중 하나다.

시민 단체인 Mexico Evalia에 따르면, Guanajuato와 Michoacan은 최근 몇 년간 이같은 범죄 신고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2018년에서 2024년 사이에 7,00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의 거의 6년 동안 이같은 강탈은 전국적으로 1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공안 시스템 사무국 (SESNSP)의 마르셀라 피게로아 프랑코 (Marcela Figueroa Franco) 국장은 지난 10월 26일 새 연방 정부가 발표한 범죄 발생 통계 발표에서 고의적 살인, 여성 살해, 총상, 납치 등의 범죄와 달리 상인들에 대한 강탈사건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알려진 데이터는 범 죄 규모의 작은 표본일 뿐이다.

국립통계지리연구소(Inegi)가 실시한 전국 피해 및 공공 안전 인식 조사(Envipe)의 추정에 따르면, 강탈 사건의 수치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97.4%였다(Inegi가 보고한 마지막 해). Sonora, Guerrero 및 Nayarit 같이 100%에 도달할 수 있는 州도 있다. Envipe(공공 안전 인식 조사)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에는 전국적으로 490만 건의 강탈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의 강탈과 갈취는 멕시코와 게레로 주에서 닭고기 판매, 미초아칸의 레몬과 아보카도 생산, 치아파스의 포르피야 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광범위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에 따라 범죄의 변종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SESNSP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멕시코 주의 수도인 톨루카는 지난 6년 동안 하루에 한 건씩 강탈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서 기성 많은 2,207건에 이르고 있다. 상위 20개 지자체 중 멕시코 주에 속한 지자체는 7개다.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순으로 목록은 Toluca, Ecatepec, Nezahualcōyotl, Naucalpan, Monterrey, Chimalhuacán, Guadalajara, Xalapa, Cuautitlán Izcalli, Tecamac, Chalco, Zapopan, Celaya, Iztapalapa, Benito Juárez(Cancun), Acapulco, Veracruz, Fresnillo, Zacatecas 및 Pachuca로 나타났다.

이 20개 지역이 지난 6년 동안

SESNSP에 등록된 총 신고 건수의 30%를 차지한다.

연방 기관 수준에서는 앞서 언급한 기간 동안 19,512건의 사건이 기록되었으며 멕시코 주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Veracruz는 4,684건, 할리스코 3,695건, 누에보 레온 3,658건, 멕시코시티 2,939건, 과나후아또 2,381건으로 이들 6개 주가 36,869건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한다.

문제는, 카르텔 조직의 강탈이 점점 더 조직화 지능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Michoacan에서 입증된 것처럼 생산량에 따라 돈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브랜드나 제품의 판매자에게도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생산자는 물론 유통하는 업자에게도 돈을 강탈하고 있는데 심지어 브랜드에 별도의 세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강탈범죄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98.36%의 불처벌을 받으며 사실상 100% 불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신고를 해도 사건접수와 처리에 당국이 거의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공권력을 넘어서는 완력으로 모든 업종에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여기서 더 나아가 특정 상품에 대해 독점 공급으로 강매에 나서기도 한다.

멕시코 지방에서 자영업은 사업의 성패보다도 이같은 강탈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을 탈출하는 상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치아파스 경찰 92명, 조직범죄 연루 혐의로 체포

치아파스 주 법무장관실(FGE)이 월요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치아파스(Chiapas) 주에서 진행된 마약 거래에 대한 작전을 펼쳐 조직 범죄에 협력한 혐의로 경찰관 92명을 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전을 주도한 Jorge Luis Llaven Abarca 검사는 기자회견에서 "과테말라 국경에 있는 마을

인 Comitán de Domínguez의 경찰들이 마약 거래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25건의 수색 영장 집행을 막으면서 충돌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방 병력까지 동원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체포에 나섰고 결국 경찰관 92명이 반란과 부적절한 직무수행 혐의로 구금됐다. 체포된 경찰은 범죄 집단에 정

보를 유출해 지역 내 경찰 작전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마약 거래 단속 작전으로 13명이 체포됐고 현금과 마리화나, 코카인 등 각종 마약이 압수됐다. 이와 별도로 통신선을 차단하고 보안요원을 공격하며 감시카메라 영상을 훼손하거나 찢거나 돌로 훼손한 혐의로 30명을 추가

로 검거했다. 이번 작전은 소매 마약 판매 통제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이 지역에서 살인 범죄가 증가하면서 실시됐다. 검찰은 체포한 경찰 외에도 범죄단체와 협력할 가능성이 있는 운송 지도자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하고 계속하고 있어 검거 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

숯불구이 전문점

LA CASA COREANA

(구)한려수도가 '숯불구이 전문점' 으로 변신합니다



넉넉한 실내 공간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손님 접대에 안성마춤,
각종 모임 환영! 귀한 손님을 위한 귀한 장소로 명성을 이어 갑니다!

각종 모임 예약받습니다!

- ▶ 단체 40석 ▶ 단체 20석 ▶ 오붓한 가족모임 6석
- ▶ 귀한 손님을 위한 VIP 12석

예약 문의 Tel. 5514-8683 / Cel. 55-1801-2313

Av.Chapultepec No.425 Col. Juarez (하림각 맞은편)

www.lacasacoreana.com

www.restaurantecoreano.com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The 22nd Overseas Elections for National Assembly Members



3.27. ~ 4.01.

세계 곳곳에서 전하는 한 표  희망찬 대한민국 미래의 시작

Each vote from every corner of the world, the beginning fu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filled with hope

투표기간 **2024.03.27.~04.01.**

Voting Period

매일 08:00~17:00 every day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The voting period may vary from one diplomatic mission to another.



선거정보 등 확인
ok.nec.go.kr

투표장소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장소

Voting Place

The place designated by the Overseas Election Commission

투표대상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

Eligible Voters

Korean nationals enrolled in official lists of overseas absentee voters or overseas eligible voters

준비물 신분증명서 (단,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서류 원본 함께 지참)

Required Documents

※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별도의 신분증은 필요없음.

※ 국적확인서류는 해당 공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An identification certificate

(Overseas eligible voters should also prepare original copies of the documents required to identify the nationality.)

※ Additional identification certificates are not necessary if a photo is attached to the documents that identify the nationality

※ Documents to identify the nationality are available on the website of the relevant diplomatic mission.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재외동포청 홈페이지(oka.go.kr)에서 선거정보 등 확인 가능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websites for the Overseas Election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k.nec.go.k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go.kr), and Overseas Koreans Agency (oka.go.kr).

Mexico city / 멕시코시티

20년 전통 중화요리 전문점

賀琳覺 하림각
Haringak

멕시코시티 유일한 중화요리 전문점

짜장/ 짬뽕/ 탕수육/ 깡풍기/ 양장피/ 만두 등 40여가지 메뉴

예약 문의

55-5511-3939 / 55-5511-2848

Praga 54 Col. Juarez CDMX Mexico city

www.haringak.com.mx